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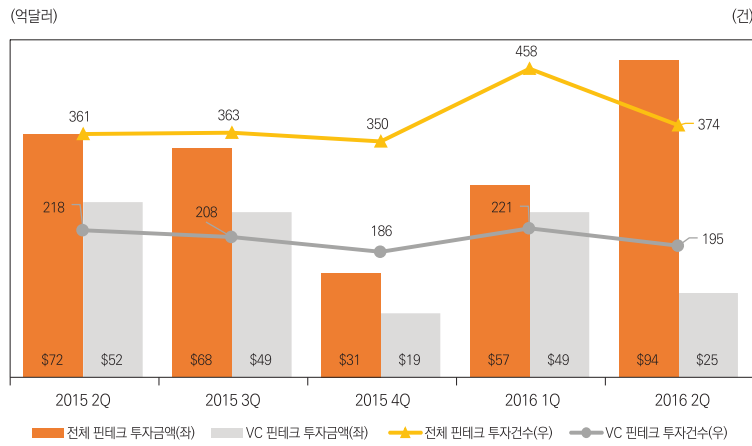
글로벌 핀테크 투자동향 및 국내 핀테크 산업 현황

- 2016년 2분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금액은 약 94억달러(374건)로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액은 약 25억달러(195건)로 전분기대비 감소
- 최근의 핀테크 투자는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외 대형 금융기관의 핀테크 스타트업 지분투자 및 인수 등 직접투자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국내 금융당국은 건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핀테크 관련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나, 리스크 관리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는 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도 더불어 모색할 필요

- 2016년 2분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금액은 약 94억달러(374건)로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이하 VC)의 투자금액은 약 25억달러(195건)로 전분기대비 감소
 - KPMG & CB Insight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엔젤투자, 사모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등을 포함한 전체 핀테크 투자금액은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중 45억달러는 중국의 엔트파이낸셜(Ant Financial) 거래가 차지
 - 2014년 10월 설립된 알리바바의 통합 금융플랫폼인 엔트파이낸셜은 개인과 소상공인 중심의 금융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내 투자자들로부터 45억달러를 조달
 - 일반적으로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의 대부분(70% 이상)을 VC가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 2분기 전체 핀테크 투자규모 중 VC 핀테크 투자 비중은 26.6%(25억달러)로 전분기대비 49%, 전년동기대비 51.9% 감소
 - 2016년 2분기 VC 핀테크 투자건수 역시 전분기 221건에서 195건으로 감소
 - 미국 렌딩클럽의 부실대출 사건으로 해당 업체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주요 핀테크 기업들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며 VC의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전체 핀테크 투자금액 및 VC 핀테크 투자금액



주 : 전체는 VC, 엔젤투자자, 사모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CVC의 핀테크 투자금액 합계임

자료: KPMG & CB Insight(2016.8)

□ 2016년 2분기 VC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13억달러 (97건), 아시아지역이 8억달러(46건), 유럽지역이 4억달러(43건)의 투자자금을 유치하였으며, VC 핀테크 투자규모는 전분기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메가딜(mega-deal)의 부재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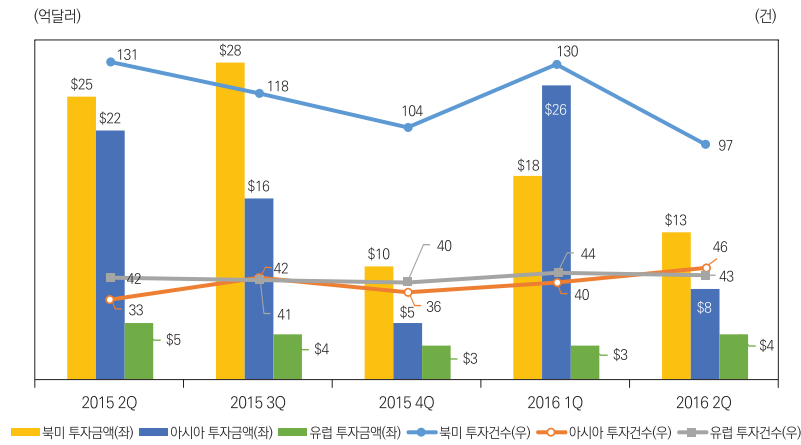
— 핀테크 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핀테크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VC의 핀테크 투자규모 및 건수는 2015년 2분기 이후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아시아지역의 VC 투자금액은 1분기 26억달러에서 2분기 8억달러로 급감하였으나, 유럽지역은 브렉시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분기(3억달러)에 비해 소폭 증가

— 2016년 2분기 VC의 5천만달러 이상 메가딜 투자건수는 최근 5분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2분기중 VC가 5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례를 살펴보면, 북미지역은 5건으로 전분기 대비 40% 이상 감소하였으며, 아시아지역은 전분기와 동일한 4건, 유럽지역은 2016년 1분기에 이어 전무한 실정

지역별 VC 핀테크 투자금액 및 건수



자료: KPMG & CB Insight(2016.8), 자본시장연구원

□ 최근의 핀테크 투자는 VC 등 전문투자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외 대형 금융기관의 핀테크 스타트업 지분투자 및 인수 등 직접투자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2015년 블랙록은 샌프란시스코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로보어드바이스(robo finance advice)를 제공하던 FutureAdvisor를 1억 5천만달러에 인수
 - FutureAdvisor의 운용자산 규모는 약 6억달러(AUM)임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금융회사들은 특정한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여 역량을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에 비해 변화 및 혁신이 느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여 기술제휴를 하거나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
- 국내에서도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과 제휴 및 협업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

□ 국내 금융당국은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및 건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핀테크 관련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음

- 2015년 3월 개소된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금융기관 제휴기회 제공 등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촉진
- 2016년 7월, P2P 대출시장이 건전하고 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P2P 대출시장의 창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하고 금융위원회 주재의 첫 번째 T/F 회의를 개최
-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¹⁾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의 등록자본금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2016.7.28. 시행)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업(지로)



- 2016년 8월 30일, 핀테크 기업에게 표준화된 형태의 금융전산프로그램(조회 및 이체 기능)을 제공해주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Open API²⁾)’을 개통
 - 2015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방안’을 실행한 것이며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은행 및 증권사와 연계되는 핀테크 서비스 개발시 개발시간을 단축하고, 개발된 서비스의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 또한 수행
- 2016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핀테크 육성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
 - 핀테크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 국내 핀테크 투자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으며 급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는 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도 더불어 모색할 필요

- 국내 핀테크 투자규모를 정확히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핀테크 전문사이트를 표방하고 있는 핀테크로드에 따르면 미공개 투자금액을 감안하더라도 2014년 이후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이 1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³⁾
 - 2016년 상반기에만 약 561억원을 유치하여 이미 2015년 385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
- 아직은 적은 규모이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해 세계 금융당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바, 핀테크 산업 육성과 더불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도 모색할 필요

선임연구원 윤지아

2)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3) 스타트업 관련 미디어에서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집계하여 미공개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힘